

주요 내용

여름휴가 계획으로 본 가계 소비심리 분석

설문조사 개요

-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기혼자(985명)를 대상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분석하여 일반 가계의 소비심리 파악

결과

- (휴가 계획 여부) 전체 응답자의 72.2% 이상이 휴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. 이는 IMF 직후인 98년(72.4%)과 거의 비슷한 수준
- 특히 월 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계층에서는 휴가 계획이 없는 가구의 비중이 98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, 그 이상의 계층에서는 비중이 감소함
- (휴가 기간) 휴가 계획이 있는 가구중 65.4%가 2박 3일 이하의 단기간을 예정
- (휴가 예정지) 응답 가구의 98.9%가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
- (휴가 비용) 국내 여행시 가구당 휴가 비용은 평균 27.1만원으로 98년 조사(21.2만원)보다 다소 증가함

결론 및 시사점

- (국내외 여행수요 정체 지속) 최근의 경기 및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, 여름 휴가 계획은 98년의 위축 양상에서 그다지 개선되지 못함
- (소비심리 호전의 한계) 아직 민간 부문의 소비 성향이 생필품 중심으로 호전되고 있으며, 여행과 같은 선택적 소비 수요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는 않음

현안 분석

여름휴가 계획으로 본 가계 소비심리 분석

김 범 구

설문조사 개요

	99년 6월 조사	98년 6월 조사	97년 6월 조사	96년 6월 조사
조사 시기	99년 6월 10~12일	98년 6월 10~11일	97년 6월 13~16일	96년 6월 12~13일
조사 대상	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기혼자			
	985名	991名	962名	1,000名
조사 목적	여름 휴가와 관련한 각종 계획의 내용 파악			
조사 방법	무작위 추출에 의한 전화 설문			

설문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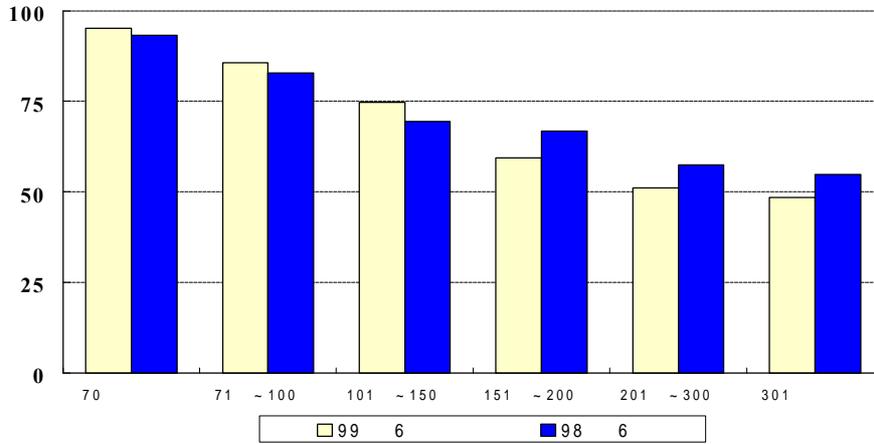
- (휴가 계획 여부) 전체 응답자의 72.2%의 가구가 여름휴가를 가지 않거나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- IMF 이전인 96~97년 조사에서는 이 비중이 응답 가구 전체의 50~60% 수준이었으나, IMF 위기 직후인 98년에는 72.4%로 크게 늘어났으며, 이번 조사의 경우도 98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

< 여름 휴가 계획 여부 >

	96년 조사	97년 조사	98년 조사	99년 조사
구체적인 계획이 있음	21.6%	18.5%	9.3%	13.6%
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갈 예정임	25.8%	24.1%	18.4%	14.2%
가지 않거나 모르겠음	52.7%	57.4%	72.4%	72.2%

- (소득계층별)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여름휴가를 가지 않겠다고 응답함. 특히 월 평균 소득 150만 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휴가계획이 없는 가구의 비중이 98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, 그 이상의 계층에서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<소득계층별 휴가계획이 없는 가구의 비중(99년 조사)>



- (휴가 기간) 여름 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10가구 중 7가구 정도(65.4%)가 2박 3일 이하의 단기간을 예정하고 있음
 - IMF 이전에는 2박 3일 이하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, IMF 직후 98년 6월의 조사에서는 62.6%로 증가함
 - 이번 조사에서는 2박 3일 이하가 65.4%로 98년 6월보다 오히려 다소 증가

< 여름 휴가 예정 기간 >

	96년 조사	97년 조사	98년 조사	99년 조사
2박 3일 이하	48.6%	55.9%	62.6%	65.4%
3박 4일	37.2%	28.1%	27.8%	25.5%
4박 5일	8.1%	7.3%	5.1%	4.2%
5박 6일 이상	5.4%	6.6%	4.4%	4.9%
미정	0.7%	1.8%	0.1%	-

- (휴가 예정지) 대부분(98.95%)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임
 - 이는 98년 조사(98.2%)와 비슷한 수준이며, IMF 위기 이전에 비해 해외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겠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줄어든 것임

< 휴가 예정지의 국내/국외 여부 >

	96년 조사	97년 조사	98년 조사	99년 조사
국 내	92.5%	96.3%	98.2%	98.9%
국 외	7.5%	3.7%	1.8%	1.1%

- (휴가 비용) 국내 여행시 가구당 휴가 비용은 평균 27.1만원으로 98년 조사(21.2만 원)에서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2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의 44.6%로 98년 조사(63.1%)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는데, 이는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수준(41.5%)임
 - 반면 휴가 비용이 21만원을 넘는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모두 98년 조사에서 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< 국내 휴가 계획 가구의 예상 비용 >

	96년 조사	97년 조사	98년 조사	99년 조사
20만원 이하	33.9%	41.5%	63.1%	44.6%
21만~40만원	43.9%	39.2%	23.9%	39.2%
41만~80만원	16.6%	14.7%	11.6%	14.2%
80만원 초과	4.0%	3.0%	1.5%	1.9%

결론 및 시사점

- (국내외 여행수요 정체 지속) 최근의 경기 및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, 국내외 휴가 여행에 대한 수요는 별로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
 - 최근의 소비 회복세는 IMF 직후의 과도한 위축 양상에서 회복되는 과정으로서, 실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중인 것으로 판단됨
 - 그러나 소비심리가 아직 외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여, 일종의 “레저, 여가”로 인식되는 국내외 여행에 대한 수요는 별로 증가하지 않음
- (소비심리 호전의 한계) 아직 민간 부문의 소비성향이 생필품 중심으로 호전되고 있으며, 여행과 같은 선택적 소비 수요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는 않음
 - 월 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계층에서는 여름 휴가를 가지 않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, 그 이상인 계층에서는 감소함
 - 특히 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휴가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, 외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
 - 이는 최근의 경기 및 소비 회복세가 현재까지는 중소득층 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, 저소득층의 경우 고용 및 임금 불안이 여전하여 경제 여건 개선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(bkkim@hri.co.kr ☎ 724-4016)